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중소기업 진로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산용

충신대학교 산업교육학부

The Effect of the Vocational Training Satisfaction of Youth on their Career Adaptability to the Small Business

San-Yong Kim

School of Industrial Education, Cho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중소기업 진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6개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신된 1128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표집방법에서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청소년의 직업훈련 만족도가 진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적응의 주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적응의 목표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예비직업인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직업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키워드 : 청소년, 직업훈련만족도, 중소기업, 진로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vocational training satisfaction of youth on their career adaptability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answered by 1128 students enrolled in six vocational schools located in Seoul. Convenience sampling was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atisfaction of vocational training positively influenced career adaptability; more specifically, the satisfaction of vocational training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itiative and Goal-Oriented of career adaptability. These results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at various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and job experience programs are needed for the SMEs in the future.

Key Words : Youth, Vocational Training Satisfaction, Small Business, Career Adaptabili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은 사회구성원이자 예비 직업인으로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한 대상이다. 중소기업기술을 갖춘 인적자원은 조직성과를 긍정적으로 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1,2]. 이러한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기술과 역량을 키워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진로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에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직업관, 직업교육훈련, 진로교육, 진로성

숙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실태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다[3-6]. 최근에는 진로성숙에서 적극적인 삶의 개념인 진로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7,8]. 그러나 융합시대에 다양한 청소년의 직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며, 중소기업 직업훈련의 상황과 환경이 청소년의 진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한 연구도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적응간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의 중소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진로적응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문제

연구문제1.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와 중소기업 진로적응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중소기업 진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직업훈련만족도

직업훈련은 지식 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능력이 요구되어 2004년에 직업훈련법에 관련된 명칭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직업훈련의 명칭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9].

청소년의 직업훈련은 중소기업과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청소년에게 진로상담·교육, 그리고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직무수행능력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로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발견 또는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만족감을 얻은 청소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직무를 감당할 때도 직무만족감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청소년에게 만족

할 만한 진로상담·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향한 진로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2 진로적응

진로적응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변화하는 일과 직무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도로 정의하고 있다[10]. 그리고 청소년들의 진로적응성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준비도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1]. 따라서 이러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진로적응은 진로의 결정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성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2.3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적응간의 관계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직업훈련이 진로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진로적응발달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긍정적 정서기질, 지속적인 직업교육, 직업훈련 만족감, 삶의 만족감 등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12].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로적응성이 높아 질수록 생활 속에서 긍정적인 힘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진로적응성이 단지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성공적인 적응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에서의 적응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말해 준다[13].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업훈련을 통해 만족감이 높아지면 진로적응발달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2015년 8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설문지를 가지고 서울시 6개 직업전문학교를 섭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먼저 설문지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직업전문학교 1개 기관을 섭외하여 200부를 가지고 예비조사(8월1일부터 8월 9일까

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지 수정보완(8월 10일부터 8월 17일까지)을 한 이후에 본조사(8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최종 6개 직업전문학교에서 남녀 각각 200부 총 1200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못표기되거나 무응답한 72부를 제외한 1128부를 조사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표집방법에서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따라서 연구자 편의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중심이 된다.

3.2 조사도구

3.2.1 직업훈련만족도

직업훈련만족도는 백영숙·이희정와 차선미가 개발한 직업훈련, 직장체험 만족도 척도의 12문항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4,15]. 이 척도는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훈련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척도는 흥미 문항과 보람 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업훈련만족도의 전체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896이다.

3.2.2 진로적응

진로적응 측정도구는 장계영이 개발한 것으로 조은혜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15,16]. 이 척도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총 20문항 중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주도성과 목표성으로 구분되어 되었으며, 이 척도는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 수준이 높다고 해석한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937이며, 주도성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876, 목표성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762이다.

3.3 연구절차

이 연구의 분석 방법은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Cronbach’s α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1을 검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2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279명으로 50.4%, 여성이 275명으로 49.6%이다. 연령은 19세 이하가 360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65.0%, 20세가 125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22.6%, 21세 이상이 69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12.5%이다. 학년은 1학년이 168명으로 30.3%, 2학년은 47명으로 8.5%, 3학년은 339명으로 61.2%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 | | N | % |
|--------|-----------------------|-----|------|
| gender | male | 279 | 50.4 |
| | female | 275 | 49.6 |
| age | under 19 | 360 | 65.0 |
| | 20 years old | 125 | 22.6 |
| | 21 years old or older | 69 | 12.5 |
| grade | 1grade | 168 | 30.3 |
| | 2grade | 47 | 8.5 |
| | 3grade | 339 | 61.2 |

4.2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적응간의 관계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적응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적응간의 관계,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적응의 하위영역인 주도성간의 관계,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적응의 하위영역인 목표성간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적응간의 상관관계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r=.547, p<.01$). 또한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적응의 하위영역인 주도성간의 상관관계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r=.570, p<.01$). 그리고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적응의 하위영역인 목표성간의 상관관계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r=.319, p<.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직업훈련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이 높아지며, 직업훈련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도성이 높아지고, 직업훈련만족도가 높아지면 목표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 | Job training satisfaction | Career adaptability | Initiative | Goal orientation |
|---------------------------|---------------------------|---------------------|------------|------------------|
| Job training satisfaction | 1 | | | |
| Career adaptability | .547** | 1 | | |
| Initiative | .570** | .881** | 1 | |
| Goal orientation | .319** | .791** | .408** | 1 |

**p<.01

4.3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다.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15.346, p<.001$). 또한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적응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직업훈련만족도가 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235.491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였다. 진로적응에 대한 직업훈련만족도의 설명력은 29.9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명력은 진로적응을 높일 때 직업훈련만족도가 일정부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3. The Effect of Job Training Satisfaction on Career Adaptability

| B | β | t | R ² | adj R ² | F |
|------|---------|-----------|----------------|--------------------|------------|
| .470 | .031 | 15.346*** | .299 | .298 | 235.491*** |

*** $p<.001$

4.4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적응의 하위영역인 주도성에 미치는 영향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적응의 하위영역인 주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Table 4와 같다. 직업훈련만족도가 주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16.303, p<.001$). 또한 직업훈련만족도가 주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도성을 높이는 데 있어 직업훈련만족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회귀모형은 F값이 265.795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였다. 주도성에 대한 직업훈련만족도의 설명력은 32.5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명력은 주도성을 높일 때 직업훈련만족도가 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4. The Effect of Vocational Training Satisfaction on Initiative

| B | β | t | R ² | adj R ² | F |
|------|---------|-----------|----------------|--------------------|------------|
| .547 | .570 | 16.303*** | .325 | .324 | 265.795*** |

*** $p<.001$

4.5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적응의 하위영역인 목표성에 미치는 영향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적응의 하위영역인 목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Table 5와 같다. 직업훈련만족도가 목표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7.898, p<.001$). 또한 직업훈련만족도가 목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성을 높이는 데 있어 직업훈련만족도가 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회귀모형은 F값이 62.379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였다. 목표성에 대한 직업훈련만족도의 설명력은 10.2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명력은 목표성을 높일 때 직업훈련만족도가 일정부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5. The Effect of Vocational Training Satisfaction on Goal Orientation

| B | β | t | R ² | adj R ² | F |
|------|---------|----------|----------------|--------------------|-----------|
| .354 | .319 | 7.898*** | .102 | .100 | 62.379*** |

*** $p<.001$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이 연구는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중소기업 진로 적응간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직업훈련만족도가 중소기업 진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적응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적응간의 관계,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적응의 하위영역인 주도성간의 관계,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적응의 하위영역인 목표성간의 관계에서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2-13]. 직업훈련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이 높아지며, 직업훈련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도성이 높아지고, 직업훈련만족도가 높아지면 목표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2-13]과 일치하는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진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훈련만족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조사되었다.

셋째,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적응의 하위영역인 주도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진로적응의 주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직업훈련만족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직업훈련만족도가 진로적응의 하위영역인 목표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진로적응 목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직업훈련만족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 밝혀졌다.

5.1 제언

본 연구는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직업훈련만족도와 진로적응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나 조절변수를 활용한 진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예비 직업인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박람회, 직업체험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인적자원을 미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충신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REFERENCES

- [1] K. I. Kim, "A Model of the influence of IMS operation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1, pp. 1-5, Mar. 2016. DOI: 10.22156/CS4SMB.2016.6.1.001
- [2] S. C. Choi, J. S. Lee, S. Y. Sim, J. H. Lee and J. H. Park, "The Effect of Job Stress and Depression on Job Satisfaction among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7, No. 1, pp. 1-9, Feb. 2017. DOI: 10.22156/cs4smb.2016.6.1.001
- [3] S. C. Han and Y. H. Kim, "The Survey of Adolescent's Valuability: a Life View, a Family View, a Education View and a Vocation View,"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 24, No. 1, pp. 55-79, 2003.
- [4] T. H. Kim, *Study on Ineffectual Elements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 for Youth at Vocational School*, Graduate School of Hoseo University, 2004. 01.
- [5] S. J. Nam, "A Study on Evaluation of Career Education and Relations between Career Education and Career Competenc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11, pp. 283-304, Nov. 2011.
- [6] K. J. Nam, "Development and Validity of Career Maturity Inventory," *Journal of Education Evaluation*, Vol. 17, No. 2, pp. 73-91, 2004.
- [7] A. Hirschi,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74, No. 2, pp. 145-155, Apr. 2009. DOI: 10.1016/j.jvb.2009.01.002
- [8] E. I. Jeong, "Mediation of College Students' Commitment to Career and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Barrier and College Adapt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7, No. 2, pp. 1-21, 2014,
- [9] National Archives of Korea,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50&pageFlag=>, 2017. 03.
- [10] D. E. Super and E. G. Knasel,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Vol. 9, pp. 194-201, 1981.
- [11] Z. Yousefi, M. Abedi, I. Baghban, O. Eatemadi and A. Abedi, "Personal and situational variables, and career concerns: predicting career adaptability in young adults,"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Vol. 14, No. 1, pp. 263-271. 2011.
- [12] P. J. Rottinghaus, S. X., Day and F. H. Borgen, "The Career Futures Inventory: A measure of career-related adaptability and optim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13, No. 1, pp. 3-24, 2005. DOI: 10.1177/1069072704270271
- [13] A. Hirschi,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74, No. 2, pp. 145-155, 2009. DOI: 10.1016/j.jvb.2009.01.002
- [14] Y. S. Baek and H. J. Lee, "The School Maladjustment

- Being Calibrated to Maturity in Youth Job Training and Career Research,” *Correction Welfare Research*, Vol. 38, pp. 59-89. 2011.
- [15] S. M. Cha, *Differences in basic occupation abilities and career search abilities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 work experiences and satisfaction*, Graduate School of Keimyung University, 2005.
- [16] K. Y. Jang,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Adaptability Scale for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9.

저 자 소 개

김 산 용(San-Yong Kim)

[정회원]



- 2006년 2월 : 연세대학교 학사
- 2009년 2월 : 연세대학교 석사
- 2012년 : 국제대학원대학교 박사
- 2011년 ~ 현재 : 총신대학교 산업교육학부 교수

<관심분야> : 다문화, 사회복지, 아동학, 융합교육